

**Vol. 4**

2025.04.14.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09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송미심선임 mssong@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 삭제 (제9조 제4항, 제38조의5, 제39조 제1항, 제42조)	2025년 1월 1일 신설하였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해 실효성 및 1개월 단위 신고확인에 따른 업무 과도화 등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해당 조항을 삭제함
항공기 부분품의 감면기간 연장 (제89조 제6항)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대상 중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함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확대 (제264조의2)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수리된 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함

(3) 시행일

’25.03.14

I. 법령 개정사항

2.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고,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역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정검역 및 미검역 물품에 대한 처벌 강화 (제48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용인 경우에는 종전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거짓 검역신고 및 검역신고 지체에 대한 처벌 강화 (제50조)	검역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지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3) 시행일

’25.09.19

I. 법령 개정사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대상이 되는 수소제조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비용이 높은 저열량탄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며,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반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폐지 (제2조의2 제1항5호)	탄력세율 적용 물품에서 유연탄 (관세율표 제 2701.12호, 2701.19호)을 삭제함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제2조의2 제1항7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로 인하함
유류공급명세서 내 포함사항 명확화 (제20조 제2항)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면세석유류의 반입사실 증명 시 제출해야 하는 유류공급명세서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 등”을 포함함
수소제조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범위 구체화 (제34조의2 제3항)	수소제조용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로서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로 구체화함

(3) 시행일

’25.03.01

## I. 법령 개정사항

## 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관세청장에게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에 대한 면세 기준을 폐지하며,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하향 조정함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 변경 (제48조 제3항)	여행자 휴대품 중 술에 대한 면세 기준을 2병(합산 용량이 2L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에서 “2병”을 삭제하고 “용량 2L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개정함
재수출면세 및 가산세 징수 대상물품 추가 (제50조 제1항24호)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과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대상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를 추가함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제65조의2)	기존에는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항이 없었으나, 그 세부기준을 별표 5의2로 신설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지정 조항 신설 (제76조의2 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함

I. 법령 개정사항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기한 신설 (제76조의2 제2항)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과실·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5.03.21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소명서 서식 변경 (별지4호서식)	원산지소명서 서식(별지4호서식) 내 원재료의 품목 번호를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 생략”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3) 시행일

’25.03.21

I. 법령 개정사항

6.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절차 생략 및 간소화 대상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고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관련 규정 정비 (제7조 제1항1호)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에 “전파법 제 47조의2(무선설비등의 전자파 등급 표시), 제 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에 따른 표시작업을 추가함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대상 업무 확대 (제7조 제1항2호)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내국물품 장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보세사 업무대행 사유 및 절차 정비 (제9조 제1항1호 단서)	보세사 업무대행 사유를 “보세사가 휴가·교육·해고·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대행 기간을 2개월로 구체화하고,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서식 신설함.

(3) 시행일

’25.03.11

I. 법령 개정사항

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자율관리보세공장지정요건 완화 및 자율관리 업무범위 확대함으로써 반도체, 조선 등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을 지원하고, 물류 공급망 간 신속한 화물 이동 지원, 검사절차 개선, 잉여물품 구분관리 간소화를 통해 물류를 원활화하고 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단일보세공장 보세창고 거리제한 완화 (제7조 제1항,3항)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는 경우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가 보세창고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거리제한을 각각 15km에서 “30km”로 완화함.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 (제25조 제1항4호,6호)	보세공장에서 가능한 보수작업의 범위에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의 하자보수작업”과 “장비·기계에 별도 용품 단순 부착, 성능검사, 각인 표시, 검품·수선 등”을 추가함.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장소 확대 (제29의2 제1항)	연구·시험용 원재료·시제품·견본품을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하여 반출할 수 있는 장소에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추가함
자율관리보세공장의 보수작업 특례 (제37조 제1항12호)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제25조에 따라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것과 동일한 품목의 동일한 작업방법으로 수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해 차후에는 보수작업 신청 및 완료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장외작업 생산물품에 대한 수출입신고 단서규정 신설 (제22조 제6항)	장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의 경우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 반출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장외작업장 관할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 신설
잉여물품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 (제33조 제11항,12항)	정확한 손모 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서 관세율이 0%이거나,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

I. 법령 개정사항

	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과세가격 기준 1kg당 3,000원 이하인 잉여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품목번호(HSK)별로 내국·외국물품 등의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하거나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함.
보세공장 소유차량 보세운송 신고자 서식 마련 (별지 제19호의2)	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시행일

’25.03.25

8.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시행령」개정 시행(’25.2.28.)에 따른 변동 사항을 훈령에 반영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비율 조항 삭제 (제6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사유를 삭제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시행일

’25.03.04

I. 법령 개정사항

9.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부과 대상 공급국	중국
부과 대상 물품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mm 이하이면서, 폭이 2,000mm 미만인 제품
잠정덤핑방지관세율	21.62%
부과기간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2월 5일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3) 시행일

`25.03.25

Ⅱ. 입안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 제조용 원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다른 제조사에서 확보한 원료를 구매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신청인 책임이 없는 경우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 영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영업등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사진 제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서식 현행화 및 전자 위생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사진의 세부내용 마련 (제27조 제1항1의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사진의 세부내용을 “제품 전면, 최소포장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포함한 한글표시사항, 수출국 표시사항, 촬영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된 천연색 사진”으로 구체화함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마련 (제28조 제1항)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전쟁,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원료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업체에서 원료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변경 수수료 면제 (별표 15 제3호나목)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 수수료를 면제함

(3) 의견수렴기간

2025.04.21

II. 입안예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 (제5조 제6항)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최초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정보공개 항목 추가 (제28조 제1항,2항)	살생물제 승인범위를 제3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함

(3) 의견수렴기간

2025.05.07.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1.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OVER GLASS; A2C17876600
물품 설명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용 윈도우 커버글라스 화학적으로 강화한 유리에 가장자리를 BM 인쇄한 후 TAC 필름(AG·AR·AF 코팅처리)을 압착하여 결합한 형 상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007.11-1000호 (8%)
변경 사유	차량용 강화안전유리이므로 제7007.11-1000호에 분류 (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2. Women’s jacke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 of heading 59.03; Women’s jacket; PR.CHNA
물품 설명	플라스틱 피복 합성섬유 겹감과 파일 편물 안감으로 만든 여성용 의류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6113.00-1000호 (13%)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6102.30-1000호 (13%)
변경 사유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 자켓(등)이므로 제6102.30-1000호에 분류(WCO 제74차 HS위원회 승인,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3. Cobalt acetylacetonat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Cobalt acetylacetonate ; COREBOND CA-20
물품 설명	미홍색 분말상의 Cobalt acetylacetonate [이명: Cobalt(II) 4-oxopent-2-en-2-olate]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942.00-9090호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914.19-0000호 (5.5%)
변경 사유	비환식케톤 구조의 배위화합물이므로 제2914.19-0000호 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4. 블랙매스(black m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Mixed Metal Oxide
물품 설명	수명이 끝난 핸드폰 배터리를 분해한 후 전극물질(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알루미늄, 탄소 등)을 선별하여 건조한 흑색계 분말상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620.99-0000호 (2%)
변경 사유	금속 추출용의 잔재물이므로 제2620.99-0000호에 분류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5.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백(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tarpaulin laundry hamper ② tarpaulin a recycling bin ③ tarpauli STORAGE ④ 부직포 분리수거함
물품 설명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백 등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1090호(①~③) (8%), 제4202.92-2000호(④)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①~③) (6.5%), 제6307.90-9000호(④) (10%)
변경 사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위한 것이므로 재질에 따라 제3924.90-9000호(①~③), 제6307.90-9000호(④)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6.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embedding therapy needle; miracu 29046B; R.KOREA
물품 설명	플라스틱사출물, needle, thread로 구성된 물품(피부 리프팅용)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018.32-9000호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006.10-1020호 (0%)
변경 사유	봉합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3006.10-1020 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7. 블라인드 엔드캡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BOTTOM BAR END CAP ; 방패TYPE ② HEAD RAIL END CAP ③ BOTTOM RAIL END CAP ④ BOTTOM WEIGHT CLIP
물품 설명	블라인드 고정을 위한 플라스틱제품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5.30-0000호 (6.5%)
변경 사유	블라인드의 부분품이므로 제3925.30-0000호에 분류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8. 엘리베이터용 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 Flat belt(CSB Belt) 32KN; GERMANY
물품 설명	플라스틱과 철강제 로프가 결합된 엘리베이터용 벨트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1000호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312.10-2099호 (0%)
변경 사유	철강제 로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제 7312.10-2099호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Ⅲ. 품목분류변경고시

9. CALCIUM SILICON CORED WIR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ALCIUM SILICON CORED WIRE; CASI6030 ② Ferro Calcium Silicone Cored Wire ③ Other magnesium articles; 마그네슘 코드 와이어(Magnesium cored wire); R.KOREA
물품 설명	철강제 튜브 내부에 탈황제 등 금속 알갱이를 충전한 것
HS CODE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①,②) (8%), 제8104.90-9000호(③) (8%)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202.99-9000호(①,②) (3%), 제8104.30-2000호(③) (8%)
변경 사유	탈황제 등 금속 알갱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 7202.99-9000호(①,②), 제8104.30-2000호(③)에 분류(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5.03.24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6일부터 2 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 원산지세탁 수출·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계도 등 홍보 병행

관세청은 3 월 6 일부터 4 월 말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 차 적발시 시정조치, 2 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품물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 3 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 5 년, 벌금 최대 1 억원) 대상입니다.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86 조) ❶ 국내생산시 품목분류(HS) 6 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 ❷ 품목분류(HS) 6 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 1차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인 평가,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2차 시범사업 실시
- 염모제 포함 76개 품목, 참여업체 확대...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1차) 19개 품목 → (2차) 76개 품목(소비자 안전상 외음부세정제·속눈썹용 펴제는 제외)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 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 최근 발표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소개
-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위한 컨설팅, 설비 지원 등 관련 사업 중점 안내

정부는 3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년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 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총 6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 (잠정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초 설명회(5, 9월), 심화 설명회(7, 10, 12월)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지원 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내용	운영기관	신청기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배출량 검증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차 '25.2.21~3.21 2차 5월 예정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지원, 현장 방문 역량강화 교육	한국환경공단	'25.3.18~4.20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을 위한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한국에너지공단	6월 예정
	CBAM 대응 컨설팅 지원	수출바우처 활용 기업 대상 CBAM 검증·컨설팅 지원	코트라	상시
탄소중립 설비개선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투자비용 보조	한국환경공단	1,2차 공모 완료 3차 공모 예정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비용 지원		11월 예정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환경분야 혁신기술·설비 실규모 제작·설치 자금 지원		11월 예정
	온실가스·에너지 효율 진단	에너지 사용·공급 시설 관련 개선 방안 제시	한국에너지공단	3월~12월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주기적 예방점검 활성화 및 악의적 탈세 행위 조사 강화로 성실납세문화 정착

관세청은 3 월 20 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관세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해 관세청이 실시한 관세조사에서의 주요 적발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 격 저가신고,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였으며, 이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 유형별 적발비율(금액기준): 저가신고(50.2%) > 세율적용 오류(36.8%) > 세액오류(13.0%)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관세조사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고,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 외환검사」 또는 「관세조사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연계 수행

이어서,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입신고 시 혜택(①세액 월별납부, ②담보생략, ③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 검토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물류 혁신 내용 담긴 「스타(STAR) 전략」 추진
- 현장의 '신발 속 돌멩이' 빼내...반도체·조선·케이(K)-방산 수출활력 제고 기대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 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 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TAR 전략」은 ①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② 물류 혁신(Transportation), ③ 자율관리 확대(Autonomy), ④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 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시제품·연구품 등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선·항공·플랜트 등 핵심산업의 거대 중장비와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축소\*합니다.

\*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 부두에서 외국물품 보관기한 3 개월 제한 → 무제한으로 변경

물류 혁신을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시 거리제한 요건을 15 km에서 30 km로 완화하며, 불필요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외작업장 관할 세관에 수출입 신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를 위해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세관에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나, 보안에 민감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세관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약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보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수작업의 세관 승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고 남은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특히, 조선업체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나오는 외국산 철강 스크랩은 실물 중량을 측정할 필요 없이 설계도에서 산출되는 손모량대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한 자유무역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할 때 제품과세 또는 투입된 원료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6.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 단위 연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 월 12 일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며 관세부과대상 품목 290 개의 품목번호를 공개함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총 294 개의 한국품목번호(HSK) 10 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 기술로 검토한다

- AI-OCR, RPA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 정보 오류 최소화
- 해외제조업소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정확한 위치 확인
- 민원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3월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번역·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하여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합니다. 이 경우 식품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민원의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8. K-뷰티 해외 진출, <국내외 화장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 식약처,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규제 정보 제공
- 수출국 다변화 흐름에 맞춘 국가별 규제 온라인 교육 개최 일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국별 인허가 절차 등을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s://helpcosmetic.or.kr>)\*’를 통해 중동, 남미 등 수출 전망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정책정보 → 화장품 정책정보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바로가기’로 접속 가능

식약처는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등 수출 대상국별 규제와 인허가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4월부터 약 16 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업계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대만, 일본(4 개국)에 대한 수출안내서를 마련하고 콜롬비아, 미국, 일본, EU 의 규정 등을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https://helpcosmetic.or.kr>) → 교육 → 해외 규제 교육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아울러, 기존의 시나리오 기반 상담 챗봇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AI 코스봇’은 시범 운영하며 다양한 해외법령 등의 정보를 질문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어 영업자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9.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 무역안보특별수사,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을 통해 국내산업 보호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①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②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③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입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의 3 개 하위조직이 배치되며, 각각의 목표 및 주요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과 단속을 총괄합니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을 모니터링하며,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단속합니다.

## ②위험점검단(점검단)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 적으로 기획 검증합니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③기업지원단(지원단)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할 예정입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0.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 대(對) 영국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 인정약정(AEO MRA)이 오는 4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를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관세 당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여 전산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 절차상 특별한 조치 없이도 위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1.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 우회 수출 고위험 품목은 사전에 검증하고, 최신 해외 동향은 신속히 공유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 ① 원상태 우회수출 ②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